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5호로 2023년 11월 9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11. 9. ~ 11. 1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증후군과 관련하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서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조기폐경에 따라 30대에서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지만 주로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해 평균 40만명이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본 안건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에 대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됨.¹⁾

1)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3개의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중구)가 갱년기 증후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10개의 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참 고 자 료

1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